



## 경북도의회, 日 독도도발방위백서 즉각 폐기하라!

배한철 의장, 270만 도민과 함께 독도는 대한민국 영토임을 천명  
독도수호특위, 독도 영유권 도발 강력 규탄.. 즉시 중단 촉구



경상북도의회는 지난 28일(금)에 발표된 일본 『2023년 방위백서』에서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기술한 것에 대해 강력 규탄하고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1978년에 독도를 최초로 기술하기 시작한 일본의 방위백서는, 1997년부터는 독도를 영토분쟁지역으로, 2005년부터는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표기하는 등 올해로 19년째 영토리 억지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배한철 도의장은 이날 규탄성명서를 통해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

법적으로 대한민국 고유 영토라는 것은 전 세계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임을 강조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도 270만 도민과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분명하게 밝혔다.

더불어, 허복 독도수호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일본정부는 독도에 대한 거짓 주장을 되풀이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진정한 과거반성을 통해 미래지향적 한일협력 관계 모색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라고 촉구했다.

윤근수/기자

## 日 방위백서, 독도 영유권 주장 규탄성명서

1. 일본 정부가 2023년 방위백서를 발간하면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영토리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 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
2. 일본 정부의 터무니없는 독도 영유권 주장은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과 앞으로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3. 일본 정부는 올바른 역사 인식과 진정한 과거사 반성을 통해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정립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3년 7월 28일

경상북도의회 의장 배 한 철

## 대구시의회, 대구시 2023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

대구시의회 예결특위, 202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 심사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7일(목), 2023년 제1회 대구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번에 대구시가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2,622억 3,300만 원 증가한 총 10조 9,929억 9,800만 원 규모로 예결특위에서 최종 수정 가결됐다.

주요 세출예산 사업 내용을 보면 ▲ 지방교육재정 부담금 221억 원 ▲ 제3산단 스마트 주차장 인프라 구축 107억 원 등을 신규 편성했으며, ▲ 시내버스 재정지원 474억 원 ▲의료급여진료비 지원 265억 원 ▲대구지역사랑상품권 249억 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부족한 세출 사업의 재원 마련을 위해 ▲학교 무상급식 215억 원 (대구시와 교육청 간 분담비율 조정에 따른 차액분 감액) ▲만3~5세 누리과정 지원 109억원 등 세출예산 1,781억 원을 감액했다.

예결특위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

성, 예산의 규모 등을 꼼꼼하게 검토해 불요불급한 사업과 근거가 불충분한 사업, 예산이 과다하게 추계된 일부 사업의 예산을 조정하고 지역 당면 현안, 민생 안전 및 필수 사업 등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이재숙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동구4)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부동산 경기 악화와 글로벌 경제 불황으로 정부의 세수 급감뿐만 아니라 지방재정력도 약화된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이번 추경안 심사에 임했다”며, “부족한 시 재정을 고려해서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투입해 각종 지역 현안 사업들을 챙기고, 어려움에 처한 민생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을 집행부에 당부했다”고 말했다.

한편 예결특위를 통과한 대구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오는 7월 31일(월) 제3차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윤근수/기자



## 대구 북구의회 ‘골목상권 활성화 연구회’작수보고회

차대식 북구의회 의장, “지역 소상공인과 의회가 합심,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당부해

대구 북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골목상권 활성화 연구회’(대표 허정수 의원)는 26일(수) 북구의회 소회의실에서 ‘북구 지역 골목상권 활성화 축제 추진을 위한 정책 및 제도 연구’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의장 및 연구단체 의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하였다.

북구는 지역별로 추진되는 축제를 문화관광 축제인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로 일원화하였다. 하지만이번 연구는 ‘금호강 바람소리길 축제’와는 별개로, 상권 활성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대구 전통시장진흥재단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인 축제 등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전통시장법과 조례

분석, 상권 활성화 재단설립 방안, 축제를 통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을 연구하여 북구에 적합한 정책을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차대식 북구의회 의장은 착수보고회 시작에 앞서 이번 연구단체 활동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으며, 지역 소상공인과 의회가 합심하여 좋은 결과를 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격려와 함께 당부의 말을 전하였다.

허정수 의원(연구단체 대표)은 “이번 연구가 북구의 골목형 상점가가 활성화되어 소상공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겠다”라며 “참여한 의원님들과 함께 우리 북구의 골목상권이 활성화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라고 말했다.

북구의회 ‘골목상권 활성화 연구회’는 허정수 의원(대표), 김상선 의원, 김시현 의원, 김중련 의원, 김현주

의원, 서상훈 의원, 이현수 의원, 장영철 의원, 장윤영 의원, 총 9명의 의원이 연구단체에 참여하고 있다.

윤근수/기자



## 서울시의회, 제1대 청소년 시의원 50명 모집...투표로 선출

서울특별시 25개 자치구 초·중·고등학교 5~6학년 대상 청소년시의원 50명 모집

서울특별시의회는 8월부터 서울시 25개 자치구 초·중·고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시의원을 선출하여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한다.

1996년부터 시행한 청소년의회교실은 그간 일일 모의의회 체험으로 운영해왔다. 그러나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들어와서는 청소년이 직접 시의원이 되어 서울시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직접 체험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시행된다. 이는 청소년들의 지방의회와 지방자치의 이해도를 높이고 민주적 문제해결 능력

을 키우기 위한 것이다. 서울특별시의회는 한국청소년재단과 협업하여 해당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청소년 시의원 선출과정은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하여 이루어질 예정이다. 시의원 임후보는 서울특별시 소재 25개 자치구 초·중·고 5~6학년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투표를 통해 최종 선출되는 인원은 총 50명이 될 예정이다.

시의원 선거와 별도로 선거인단 모집도 동시에 이루어진다. 선거인단은 서울특별시 내 만9세~24세(1999년 7월 20일생~2024년 7월 20일생)를 대상

으로 8월 9일부터 8월 13일까지 5일간 모집하며, 선거인단 규모는 25개 자치구별 각 30명으로 총 750명이다.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 시의원 모집은 8월 12일(토)까지 진행되며,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나흘간 시의회 메타버스 ‘청소년 의회월드’에서 선거인단에 의해 선거가 실시된다.

청소년 시의원으로 선출되고 나면 5개월의 임기 동안 의정활동을 직접 체험하게 된다. 의정단 선출, 정당 구성, 상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본회의를 통한 의결 과정을 청소년 시의원들이

직접 실시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모의조례 발의, 안전검사, 찬반토론 등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수행하게 되며, 활동 과정에서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및 시의원과의 만남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김현기 의장은 “지방의회, 지방자치는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의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 발전할 수 있다”라며, “청소년들이 직접 정책을 제안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청소년 시의원 모집에 많은 참여 바란다”라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 전라남도의회 한숙경 도의원, 바다 지키기 실천 방안 모색하는 ‘주니어해양컨퍼런스’ 참석

일상에서 가정, 기업 모두 ESG 실천해야

해양 및 기후 위기가 심각한 가운데 한숙경 도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7)은 28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23 주니어해양컨퍼런스’에 참석해 미래세대 당사자인 주니어들이 환경문제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했다.

‘주니어해양컨퍼런스’는 미래 해양 환경의 주인공인 주니어와 함께 지속 가능한 바다를 지키기 위한 실천 방안을 제안·발굴·토론하는 행사로써 올해로 3회째를 맞았다.

평소 한 의원은 탄소 중립 실현, 미래 기후변화 대응 등 환경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갖고 환경 관련 정책과 의정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본 행사에 참석한 한 의원은 “전시된 다양한 친환경 제품들을 살펴며 탄소 중립 실현에 있어 기업들의 ESG 경영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을 재차 깨달았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행사는 지속 가능한 환경에 관심 있는 주니어들과 이에 대한 막중한 과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공유하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히며, “무엇보다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각자가 노력해야 하며, 앞으로 의회 차원의 다양한 정책 발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 의원은 지난 6월, 정부가 ‘쓰레기 직매립 제로화 정책’을 조속히 추진할 것’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폐자원 에너지화 정책’을 적극 활성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미래세대를 위한 더 나은 환경 조성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박종배/기자





















# 경남도, 고수온 주의보 발령에 따른 총력대응 돌입

7월 28일 11시부터 통영 수우도~부산 가덕도 해역 고수온 주의보 발령

경상남도는 장마가 끝나고 본격적인 폭염 발생으로 수온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28℃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7월 28일 11시부터 통영 수우도~부산 가덕도 해역에 고수온 주의보가 발령되어 어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한 총력대응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도내 연안 해역의 수온은 22~25℃ 정도로 전년 대비 0.6℃ 정도 낮게 나타나지만 폭염이 시작되면서 단기간에 수온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어 피해 예방을 위해 경남도는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도는 지난달 고수온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양식장 안전기반 강화를 위해 11억 2,500만 원을 투입하여 산소발생기 등 어업인 고수온 대응장비를 보급하고, 면역증강제 22톤을 공급했으며, 고수온 특약 보험 가입 지도 등 선제적 대응 조치를 발 빠르게 완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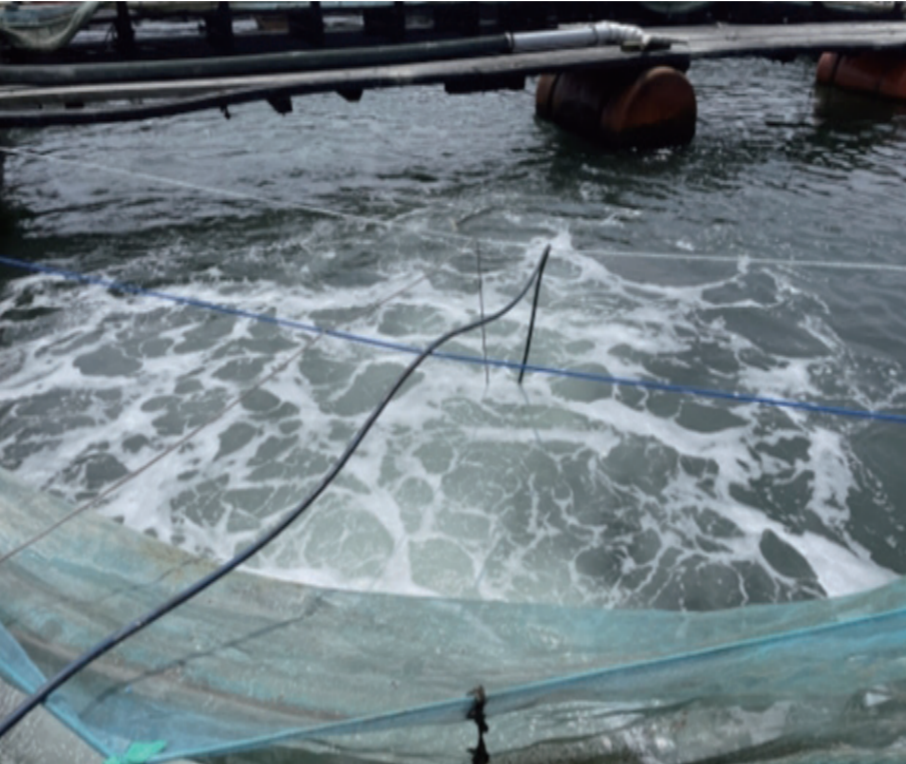
더불어 지난 7월 24일부터 28일까지 일주일간 고수온에 따른 양식 수산

물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연안 7개 시·군 우심해역을 중심으로 고수온 대비 준비사항 점검에 나섰으며, 양식장 관리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당부했다.

도는 고수온 피해 최소화를 위해 중점 관리해역 수온정보를 도에서 운영하는 실시간 누리소통망 소통창구인 적조·이상수온 밴드를 통해 어업인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고수온 주의보 발령해역 시군과 함께 고수온 비상대책 상황실을 본격 운영하고 있다.

김제홍 도 해양수산국장은 “도내 주요 양식해역 수온이 28℃로 상승하면 양식생물 피해가 우려되므로, 피해 최소화를 위해 조기출하, 사료공급 중단, 액화산소 공급 등 양식장 관리에 각별한 관심과 주의를 기울여 주길 바란다.”면서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모니터링 확대 등 적극 노력하겠다.”고 당부했다.

장재현/기자



# 대구광역시, 휴가철 상수원 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7월 말~9월 중순, 대구시, 구군 및 대구지방환경청과 합동단속

대구광역시는 여름방학 및 휴가철인 7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동구·달성군·군위군 상수원보호구역(4,905만㎡) 내에서 발생하는 무허가 영업(식당), 건축물 등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7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는 학생들의 여름방학과 직장인의 휴가 시즌으로 계곡, 하천 등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서 야영, 취사행위, 낚시, 다슬기 채취 등의 각종 불법행위가 다수 발생한다.

특히, 무허가 건축물, 불법 용도 변경, 무허가 영업(식당), 불법 형질변경 등의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관계 기관과 함께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구·군 환경, 위생, 건축(토지) 부서 및 대구지방환경청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며,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건축물(음식점) 등은 데이터베이스화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추적 관리한다.

또한, 이번 단속에서는 군위군이 새롭게 대구시로 편입돼 상수원보호구역이 늘

어나는 만큼 드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입체적 감시로 사각지대를 줄이고 점검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며, 주말과 공휴일에도 수시 순찰을 강화해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수도법 제83조 규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특히 무허가 음식점 및 건축행위 등은 식품위생법, 건축법 등 개별법도 함께 적용받아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장재욱 대구광역시 맑은물이웨이추진단장은 “이번 특별단속은 우리가 마시는 수돗물의 맑고 안전한 생산을 위한 것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낚시, 야영 등 불법행위 발견 시 관계기관에 적극 신고해 달라.”며,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 공휴일에도 지속적인 감시·단속을 실시해 불법행위에 대해서 엄정 조치할 것이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 경주시, 역대급 무더위 전망에 폭염 종합대책 마련

9월 30일까지 ‘폭염대응 T/F팀’ 구성해 폭염상황 총괄 관리  
4개 주요노선 살수차 4대 운영, 무더위 쉼터 196개소 폭염대비 물품 지원  
경로당 633곳에 전기요금 개소당 25만원씩 지원, 그늘막 138개소 운영 등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2023 폭염 종합대책’을 마련,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지난 30일, 시는 9월 30일까지 3개반 14개 부서로 구성된 ‘경주시 폭염대응 T/F팀’을 구성해 폭염상황을 총괄 관리하고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폭염피해 예방 및 신속한 대응체계 운영 ▲생활 밀착형 폭염대책 ▲폭염 취약 분야별(농업, 축산, 수산)관리 ▲여름철 에너지 안정화 대책 등 4개 분야 9개 세부대책을 마련했다.

먼저 폭염특보 발령 시 공무원, 자율방재단을 활용해 노년층 농업종사자 등에게 폭염 예방 가두방송과 예찰활동을 강화한다. 또 살수차 4대로 교통량이 많은 주요 도로변과 골목길 등 4개 주요노선에 일일 80km 물 살포 작업을 통해 도심 열기를 가라 앉힌다.

8월 중 지역 중·대형 공사장 대상, 폭염대비 건설현장 행동요령 준수, 공사장 내 근로자 쉼터 운영, 무더위 휴식시간제 운영 등 철저한 현장점검으로 야외 근로자 안전 관리에도 힘쓴다.

장애인·독거노인·거동 불편자 등 폭염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전담사회복지사, 노인 돌보미, 생활지원사 등 수행인력 361명을 재단 도우미로 지정, 안부전화, 방문 건강체크 등을 실시한다.

특히 무더위 쉼터 196곳에 쿨매트, 부채, 양산 등 폭염예방 물품을 배부하고, 지역 경로당 633곳에 개소당 25만원씩 냉방비(전기요금)를 지원한다.

주민들이 길을 걷다 잠시 쉬어갈 수 있도록 횡단보도 곳곳에 그늘막도 설치해 운영한다. 온도와 바람에 반응해 자동으로 개폐되는 스마트그늘막 14개소를 포함해 138개소에 그늘막이 있어 보행 시 뜨거운 햇볕을 피하거나 일사병 등 온열질환을 예방할 수 있게 한다.

더불어 발자국 폭염피해 방지를 위해 농업용 저장시설, 생육환경 개선지원 등 예방사업비 1억5천만 원을 투입한다. 이밖에 수충별 수온관측 결과와 진행상황 등 어업지도선 예찰정보를 어업인, 단체 등 1200명을 대상으로 문자서비스와 카톡을 통해 제공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6월 한국전력공사와 전력 공급시설 사고예방을 위한 사전 특별 점검을 실시했으며, 오는 9월까지 유관기관 비상대응 상황실도 운영한다. 시는 폭염대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청 홈페이지와 SNS 등을 통해 폭염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집중적으로 홍보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폭

염에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주낙영 시장은 “올여름이 평년에 비해 기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폭염 대책을 한층 더 강화해 폭염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폭염특보 발령 시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가까운 무더위쉼터를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며 말했다.

윤타용/기자



# 강화군, '기본형 공익직불' 부정수급 점검 나선다!

자격요건 맞지 않을 시, 환수 및 등록제한 등 불이익

강화군은 올해 신청된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에 대해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9월 까지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하여 일정 자격을 갖추고 영농에 종사하는 자에게 직불금을 주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17~’19년 3년 중 1회 이상 쌀·밭·조건불리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로 제한되어 있던 요건이 사라져, 전년 대비 자격 검증이 필요한 대상자가 많다.

이에 군은 직불금 부정수급 사전 차단을 위하여 부정수급 고위험군(신규자, 관외 경작자, 보조사업 불일치자, 장기 요양 등금 판정자 등)에 대해 1차 점검하고, 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강화사무소와 실경작 여부, 부정한 농지 분할 등에 대해 현장 확인 등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결과 착오 등의 방법으로 잘못 등록된 경우 필요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특히, 실경작을 하지 않는 자가 의도적으

로 기본 직불을 허위로 등록한 경우는 등록 취소 및 제한 등 엄격하게 처분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자격요건에 맞지 않는 자가 직불금을 신청할 경우, 직불금 환수 및 등록제한 등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본인이 적법하게 경작하는 농지 면적만큼만 직불금을 신청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김중남/기자



어메니티장흥

# 제16회 정남진 장흥물축제

7.29(토)~8.6(일) / 9일간  
탐진강 및 편백숲 우드랜드 일원

온 세상을 물로 적셔라 장흥에 빠져라!

문화관광축제 VISIT KOREA YEAR 2023-2024



# 산림청, 우리나라 국토 최남단에서 한국잔디 4종 자생지 발견

국립산림과학원, 마라도에서 비단잔디, 갯잔디, 금잔디, 들잔디 자생 확인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우리나라 국토 최남단 마라도에서 토종 한국잔디(조이시아그래스, Zoysiagrass)인 비단잔디, 갯잔디, 금잔디, 들잔디의 자생지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섬 가장자리와 절벽 주변에는 갯잔디, 섬 안쪽으로는 들잔디와 금잔디가 발견됐다. 특히 비단잔디는 중단됐던 잔디연구('65~'85)가 재개된 이후('95~) 처음으로 자생지가 발견되어 더욱 의미가 깊다.

확인된 비단잔디는 잎의 폭은 8mm 정도로 아주 좁고, 꽃대 길이는 9mm로 짧았으며, 꽃대에 맺히는 종자 수가 5개였다. 비단잔디는 한국잔디 중 잎이 매우 가늘지만 추위에 매우 약한 특성으로 인해 한국에서는 쉽게 볼 수 없으며, 주로 미국에서 정원용으로 활용되고 있다.

오랜 기간 해풍의 영향으로 기암절벽을 이룬 마라도에서의 자생지 발견은

척박한 토양과 염해 환경에서도 잘 견딜 수 있는 토종 한국잔디의 강한 생명력 증명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바이오소재연구소 배은지 박사는“앞으로 토종 한국잔디가 임해매립지, 도로절개지 같은 불량한 환경뿐만 아니라 운동장, 정원 등 생활 주변 녹화용 소재 등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메타 아일랜드 / 인스타그램 / 메타에 후속 제재

'메타 아일랜드 및 인스타그램'의 동의 없는 이용자 타사 행태정보 수집 관련 과징금 부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7월 26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적법한 동의 없이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 등에 이용한 Meta Platforms, Ireland Limited( '메타 아일랜드')와 Instagram LLC( '인스타그램')에 대해 각각 65억 1천 7백만 원과 8억 8천 6백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하는 한편, '페이스북 로그인' 기능에 행태정보 수집 도구를 결합시켜 사업자 및 이용자 모르게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한 Meta Platforms, Inc.( '메타')는 3개월 내 자진 시정 계획을 공식 제출해오에 따라, 시정 후 그 결과를 개인정보위에 보고하도록 의결했다.

[메타 아일랜드 및 인스타그램]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9월 적법한 동의 없이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한 메타에 대해 과징금 및 시정 명령을 부과하면서, 메타 아일랜드 및 인스타그램에 대해서는 추가조사를 진행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른 조사 결과, '18. 7. 14. 이전 한국 이용자에게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제공한 메타 아일랜드 및 인스타그램이, 이용자의 타사 행태

정보를 수집, 맞춤형 광고 등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과정에서 이용자로부터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메타 아일랜드는 페이스북 계정 생성 시 작은 스크롤 화면을 통해 "데이터 정책" 전문을 보여주고 있어, 이용자가 타사 행태정보 수집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동의했다고 볼 수 없었고, 인스타그램은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 인스타그램 계정 생성 시 약관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했으며, 그마저도 해당 개인정보 처리방침에는 '타사 행태정보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는 행위 시 법령인 '舊'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개인정보보호 규정인 제22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하여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 메타]

한편, 메타는 개발자(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및 앱에서 간편 로그인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페이스북 로그인'을 설치하는 경우, '페이스북 로그인'의 기능과 전혀 관련이 없는 타

사 행태정보 수집 도구가 함께 설치되도록 하여 이용자의 해당 웹사이트 또는 앱 내에서의 행태정보를 메타로 전송·수집되도록 한 것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메타가 '페이스북 로그인'을 통해 해당 정보가 전송·수집되는 사실을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알 수 없도록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고발 여부를 검토했는데, 이 과정에서 메타는 3개월 내에 해당 행위를 자진 시정하겠다고 공식의견을 제출했다.

개인정보위는 메타가 자진 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점, 자진 시정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한 개인정보보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예상 가능한 점, 이용자 측면의 동의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이미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시점에서 메타에 대한 법 위반

판단을 일시적으로 유보하고 자진 시정 기회를 부여하여 개인정보 침해 소지를 빠르게 해소하되, 그 이행 여부를 점검·확인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는 "'20. 8월 출범 후 페이스북이 개인정보를 무단 제공한 사건에 대한 제재('20.11.25.)를 시작으로 페이스북, 넷플릭스, 구글 등의 동의방식에 대한 제재('21.8.25.), 맞춤형 광고 관련 구글·메타에 대한 제재('22.9.14.) 등 국내 사업자뿐만 아니라 글로벌 빅테크의 법 위반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왔다."면서, "이번 처분이 앞으로 국내외 플랫폼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 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알리도록 노력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최광수/기자



## 충남도 '도민 참여 숲' 기관단체와 힘 모은다

NH농협은행 충남본부와 홍예공원

명품화 조성 지원 업무협약도 체결

충남도는 2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홍예공원 내 도민 참여 숲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 2건을 체결했다.

김태홍 지사와 성우중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내포문화숲길 이사장 도신스님, 전영한 충남발전협의회회장, 이경용 충청남도새마을회장, 이진삼 충청향우회중앙회 총재, 이명범 충남도민중앙회장, 이재욱 재인천충남도민회장, 백남성 NH농협은행 충남본부장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번 협약식은 홍예공원 기본 계획 설명, 추진 상황 및 협약 내용 보고, 서명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먼저 도는 도민 참여 숲 조성사업 수행기관인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내포문화숲길, 참여단체인 충남발전협의회·충청남도새마을회·충청향우회중앙회·충남도민중앙회·재인천충남도민회·세계향우회·미동부충청도향우회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홍예공원 도민 참여 숲 조성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으로 각 기관은 도민 참여 숲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힘을 모으고 지역복지 증진,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도는 실시설계유역 추진 및 홍보 활동 등 사업 전반을 총괄 추진한다.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재원 조성을 위해 기부금품 모금·접수를 위한 지정계좌를 개설하고 배분 사업을 관리하며, 성금 기부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을 기부자에게 발행한다.

내포문화숲길은 도민 참여 숲 조성사업비 신청·배분·집행 결과 보고 등 사업 관련 일체 활동을 진행한다.

협약에 참여하는 충남사회단체·향우회는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활동을 펴고 공감대를 형성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어 도는 NH농협은행 충남본부와 '홍예공원 명품화 조성사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도는 도민 참여 숲 내 농협 숲 조성 공간을 제공하고, NH농협은행은 (가칭)충남 도민 숲 환경사회투명(ESG)예금 판매액의 0.1%(최대 5억 원)을 2025년 홍예공원 명품화 사업 종료 전까지 후원하기로 했다.

도민 참여 숲은 개인과 기관·협회·단체 등으로부터 현수금을 받아 느티나무·단풍나무·참나무·목련·은행나무·이팝나무 등 나무 1000그루와 편의시설을 홍예공원 곳곳에 조성하는 사업으로, 목표액은 100억 원이다.

도민 참여 가능 금액은 제한이 없으며,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랑의열매) 지정 계좌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수덕사 대웅전 마당의 느티나무는 수령이 350년을 넘었고 도내 최고령 나무인 예산 상종리 느티나무는 1000살이 넘었다"라면서 "사랑은 가도 도민들이 기부한 나무와 숲은 세대를 이어 충남의 자랑으로 수백 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민숲을 토대로 세계적인 명품공원 홍예공원을 만들 것"이라며 "용봉산과 수암산, 도청사, 골프장까지 연계 확장하고 그 안에 미술관, 예술의 전당, 키즈파크 등 다양한 문화예술 시설을 채워 새로운 상징 공간을 완성해 나아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지사는 "'홍루 선 나무는 숲을 이룰 수 없다'란 뜻의 옛말 독목불성림(獨木不成林)처럼 도의 의지만으로는 이번 사업을 이룰 수 없다"라면서 "도내 각계 기관·단체·기업이 함께 힘을 모아 도민숲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최정근/기자



# 섬이 그리는 대한민국

2023. 8. 8. (화) ~ 8. 11. (금)



제4회

# 섬의 날

in 울릉도





# 영양 들여다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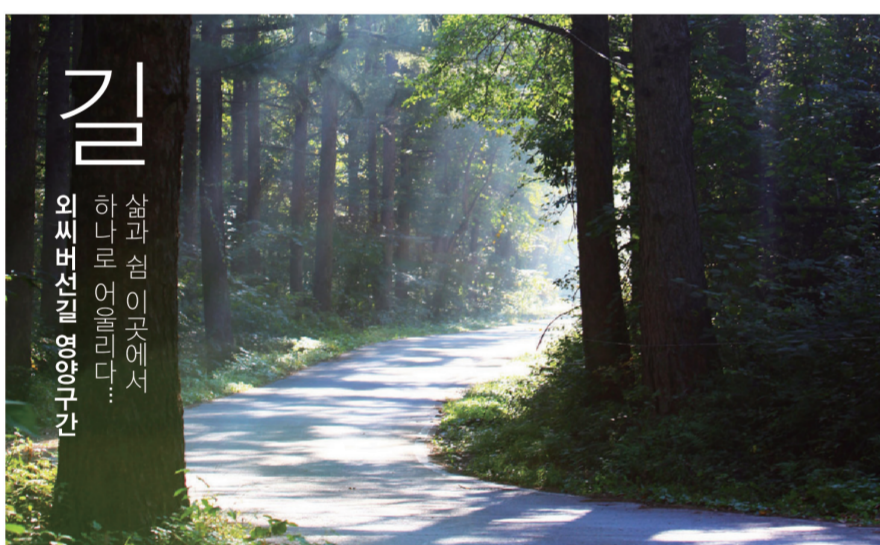
www.yyg.go.kr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묵으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낼수록 매력이 샘솟는  
**영양**으로 오세요



# ZOOM

들여다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아온 **영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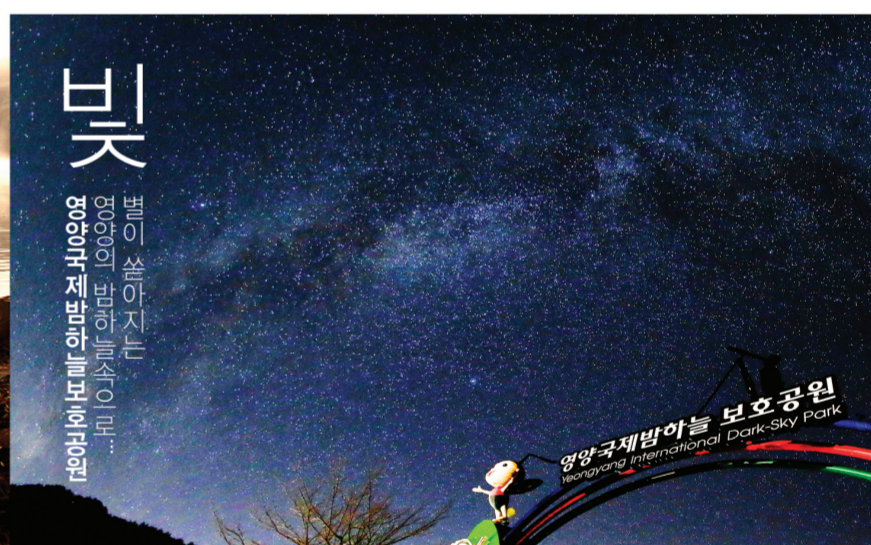
길

삶과 쉼 이곳에서  
하나로 어울린다...  
외씨버선길 영하산길



물

영양의 아름다움  
이름다움을 신감...  
영하강 유역전



빛

별이 쏟아지는  
영하강 유역전...  
영하강 유역전



얼

시문학의 대가  
석문도 영하강 서생의 정취...  
영하강 서생지



맛

사백년을 이어온  
반가의 레시피...  
장계향의 음식다미방



심

자연과 벗하던 선비의  
기품이 깃들다...  
영하강 서생지



숲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  
조지훈과 주실마을

## 감동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 **영양의 자연**\_일월산, 선바위와 남이포, 삼의계곡, 수하계곡, 본신계곡, 침벽공원, 측백수림, 외씨버선길
- **영양의 역사**\_음식다미방, 서석지, 두들마을, 주실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검산성,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_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 반딧불이천문대,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홍보전시관, 일월산자생화공원, 영양풍력발전단지, 흥림산자연휴양림, 양양산촌생활박물관, 분재수석야생화전시관





권력 점프를 위한 남다른 선택!

# 기업하기 좋은 원스톱 대구!

Who is the next?



## 원스톱투자지원단 운영

인허가에서 착공까지  
2개월 내 원스톱 투자지원

- 15개 기관 투자지원협의체 ▶ 중요사안 해결책 모색
- 30개 기관 340명 실무지원단 ▶ 사안 발생 즉시 맞춤형 신속지원



## 원활한 인력수급

**산·학협력** 39개 R&D센터를 통한 맞춤형 지원

**인재양성** | 전자정보기기, 미래차전환부품 분야 인재양성(RIS사업)  
| 삼성전자 - 경북대 모바일공학 계약학과 운영  
| 삼성전자 - DGIST 반도체 계약학과 신설

**우수인력** 대구권 51개 대학 연간 7만명 인재 배출



## 최적의 투자 입지

- 대구경북신공항 및 첨단산업, 제2국가산업단 등 건설
- 한 시간이면 도달할 수 있는 4개 국제항만
- 전국 모든 곳으로 열려있는 철도와 고속도로망



## 5대 미래산업 집중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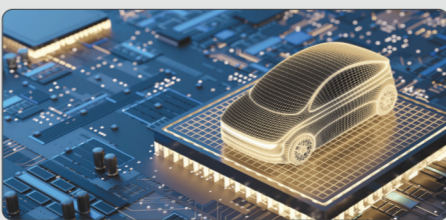
### UAM연계 미래모빌리티

- SKT컨소시엄 협업 UAM 기반 구축
- 미래모빌리티 소부장산업 육성 (모터, 배터리, 마이크로EV)
- 기업이 몰려드는 자율주행산업 허브 구축



### 반도체

- 첨단센터 반도체 파운드리 산업 생태계 조성
- D-FAB 센서 파운드리 구축
- 센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DGIST 센소리움연구소 설립·운영)



### 로봇

- 국가로봇테스트필드 구축
- 이동식 협동로봇 규제자유특구 지정
- 서비스로봇 실증 및 자율주행로봇 플랫폼 구축



### 헬스케어

- 디지털 헬스케어산업 전주기 (데이터수집·중개, 개발·실증, 판로개척) 지원
- 의료산업 사업화(판로개척) 중점 지원
- 디지털 치과클러스터 구축 및 디지털치료제 육성



### ABB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 수성알파시티 디지털 혁신거점 조성
- 과기부 5대 협력프로젝트 추진
- ABB성장펀드 운영

